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한글運動의 劃期的收穫

標準語査定第三讀會完了

一

朝鮮語學會의 朝鮮語文統一運動은 再昨年 十月의 「한글마춤법統一案」發表로써 第一段의 프로그람을 마치고 다시 第二段計畫으로 標準語査定에 着手하야 去年一月의 溫陽溫泉의 第一讀會, 同八月의 牛耳洞의 第二讀會를 마치엇슴은 이미 吾人의 記憶에 새로운바이어니와 그동안 委員諸氏는 第二讀會를 經한 査定案을 再審査하고 再整理한다음 이草案에 對한 社會各方面의 意見을 諮한後 드되어 去 三十日부터 第三讀會를 仁川에서 開하고 前後三日間 晝夜兼行으로 會議를 繼續하야 最終査定을 圓滿히 終了하엿다고한다. 아직 發表까지에는 修正委員의 最終修正이 남앗스므로 前途에는 相當한 時日이잇서 案自體에 對한 批判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如何튼 이로써 標準語査定의 第一期를 마치엇스므로 朝鮮語文統一運動은 一步前進되어 다시 第三段의 프로그람에 着手하게되엇스니 이야말로 한글運動의 劃期的大收穫이라고 안흘수업다。

二

集團的乃至 社會的生活에잇서서 語文의統一이 如何히 必要한것과 現今의 우리들이 語文의 不統一로 얼마나 不便을느끼며 文化發展上 얼마나 큰支障이 되어잇는가는 다시 呶呶할 必要조차업거니와, 吾人의 切實한 現實的要求에 應하는 民族文化의 大事業이 着着 進捗되어 거의 完成의 域에 達하야 民族文化建設의 基礎를 確立하게되엇슴은 實로 朝鮮民族과 文化朝鮮의 將來를爲하야 慶賀不已할바이다。同時에 이事業의 오늘이 잇게되엇슴은 이 擧族的大事業에 先覺하고 多年 이事業을 爲하야 努力한 朝鮮語學會와 및 朝鮮語硏究에 熱衷한 專門硏究家諸氏의 血汗의 結晶으로 이루워진것이니 民族文化事業을爲하야 바친 貴한 努力과 그들이 遭遇한 先驅者的苦難에 對하야 滿腔의 敬意를 表하지 안흘수 업슬것이다。

三

이제 우리의 期待는 査定된 標準語發表에 集注되거니와 이 標準語가 한번 確定된다면 現代는 勿論 今後 歷史를 通하야 億千萬人의 意思表示의 斧鑿이 될것이니 嚴肅한意味로는 標準語의 發表는 一面으로는 慶賀할 事實이로되 一面으로는 가장 恐怖를 느끼는 바이다 萬若에 조곰이라도 不自然과 不便이 잇다 할진대 그累를 數千代後에 남기는 結果가 될것이니 元來가 容易한 事業이 아니다。勿論 斯界의 權威들이 數年을두고 時間과 努力을 바친것이니 만큼 不足과 잘못이 잇스리라고는 생각되지 안커니와 發表前의 一點一語에라도 格別留意하야 最終修正에서는 적어도一毫의 不備와 不便이업도록 努力하여야 할것이며 또 한걸음 나아가서 이로써 標準語査定과 朝鮮語文整動이 끗난것이아닌것만큼 語文統一完成의 最後의一階段까지 硏究와 努力에 倦怠이 업기를 우리는 要望하는바이다。

四

끝으로 이事業은 비록 斯界의 權威와 硏究家의손으로 案이 作成되엇다고는하나 一般社會가 이를支持하고 實行하지안는다면 貴重한 勞作의 結晶도 一片空文化하고 말것이니 우리는 民族文化의 將來를爲하야 設令 多少의不滿과 不便이 잇다하더라도 小異를바리고 大同에따라서 다가티 이를 支持하고 實行하여야할것이다。이社會的支持야말로 이事業完成의 要締이오 決定的인 條件이다。지금와 우리에게 이事業을 支持하고 實行하야 이것을 完成케할 熱과 實行力이 업다면 民族文化 … 發展은 … 말것이며 …

英蘇借款의成立은 蘇軍備强化助長

콤인테른의活動에 寄與할뿐

極東에 도 影響極重大

【哈爾濱電】最近飽和狀態에 達하여잇는 英國金融界의 投資市場을 開拓하기爲하야 英蘇間에 總額一千萬磅의 期間十個年의借款이 成立되엇다고傳하는데 이와가튼 巨額의 借款을蘇聯에附與하는것은 모든 産業經濟를軍備와 連結식히는 蘇聯의 進出과 콤인테른의 赤化工作을 助成强化하는것이라하야 當地消息通은 左와如히 말하엿다 「英國이 이와가티 巨額의借款을 蘇聯에附與하는것은 蘇聯의諸情勢를 强化식혀 全世界에 工作을 展開식히는 볼쉬비키의宣傳 其他의 赤化工作을 强化케하는것이되다 더욱 그被害를 가장만히 밧는 것은 英國自身이다 赤色莫斯科를 움지기고잇는것은 콤인테른인데 콤인테른은 周知하는바와 가티 英國殖民地印度, 加奈陀, 其他에잇서서 執拗하게 反英擾亂工作을 繼續하고잇다 英國識者間에는 此와如한 蘇聯의 工作을 痛感하는者도 相當이잇다 더욱 最近의 世界經濟恐慌을 打破하는 가장有力한 方法은 一億六千萬人의 大消費市場인 蘇聯을 開放하는것이다 이것을 達成함에는 共産主義政府를 打倒치 안코면안된다는說을 吐하는者가 잇다 共産主義의强化는 世界大陸各地에 分散하야 無數한植民地를가진 英國에對하여는 一大脅威임에도不拘하고 何故로英國은 此를 强化助成함과如한行爲를하는가? 即其理由는 이러하다 英國이最近國際情勢의 推移中에잇서서 其弱點을 續續暴露하게되엿다 伊에紛爭에잇서 獨逸의行動에對하야, 埃及問題에잇서, 이것이모다 蘇聯에借款을與하게된 遠因이다 英國은 蘇聯과 友好關係를맺저 自己의 弱勢를 補强하려고 企圖하고잇다 그러나 그것은 將來더욱 英國의弱勢化에拍車를 加하는 動因을 짓는것이라고 말치안흘수 업다 먼저 第一에 諸問題는 英國植民地에잇서서 諸問題의 紛糾激化를 指摘할수잇다 다음에 英蘇借款은 國際情勢에 重大反響을 齎來하는것이다 周知하는 바와如히 蘇聯은 바야흐로모든 國力을 傾倒하야 軍備에다를질치고잇다 크레믈린當局이 國民의總力量을動員하야 軍備擴張에 努力하야 다음에올階級戰으로全世界革命으로 展開하려고 企圖하고잇다 英國과佛國의親蘇援助는 結局크레믈린의 世界赤化를 助長하는것이다」

蘇聯極東艦隊에 新協定不適用

英蘇海軍協定의大綱

【倫敦電】英蘇兩國代表는 前後三個月에亘하야 折衝한結果 新海軍協定의 大綱을決定하고 今後二週間以內에 調印하기로 意見一致되엿는데 協定案의內容은 新海軍條約을基調로 蘇聯政府의 特殊地位에關聯하야 左의主要項目을 包含하엿다 한다

一、新倫敦條約의實的制限條項

一、建艦通報條項

一、蘇聯政府는 主力艦二隻 甲級巡洋艦七隻建造의權限을 保有함 但甲級巡洋艦의備砲口徑은 六吋로함

一、甲級巡洋艦七隻을例外로 蘇聯政府는 新倫敦條約에 所謂『不建造地帶』를受諾하고 八千噸以上 一萬七千五百噸의艦艇을 建造

一、日本政府가 新倫敦海軍條約에參加치안는限 今回의協定은 蘇聯極東艦隊에適用치아니함

一、紳士協定 但蘇聯政府는 極東艦隊에對하여도 可及的新協定을遵守하야 他國政府가 新倫敦條約을 無視하고 建造工作을開始하지안는限 協定制限外의建艦에着手치아니함

一、英蘇兩國政府는 協定案의成立과함께 直時調印함 批准은 英國政府가 獨、波、丁抹政府와同樣의協定을 締結한後로함

南朝鮮遍歷紀行

南原廣寒樓其他 (一)

徐椿

나는 今番、講演次로 南原、求禮、晉州、固城、統營等地로 한바퀴 도라왓다。七月二十日밤車로 떠나서 約十日을 費하야 들고 七月三十日에 歸來햇다。이동안 各處에서 보고 드른것을 그려보자는것이 本篇의 目的이다。京城驛에서 二十日밤十時五十分發木浦行을 탓다。이날은 京城內 各學校가 夏期休暇를 開始한 날이라、車間은 學生이 大部分 占領하야 몹시 비좁앗다。뷔좁고、무덥고、兼하야 밤이라、車窓으로보아서의 沿道의 景致를 볼수도 업고、보이지도 안는다。第一次講演地南原을 가려면 裡里驛에서、全北線을 바꾸어 타야되는데、이車의 裡里到着時間이 翌日아츰六時七分이라는 어서바른 時間이다。이時間에 여여 깨워 달라는 말을 列車보이한테 付托하고 잠이 들고마럿다。

애 우는 소리에 단잠이 깨면서 內心으로 그애를 원망햇섯다。그러나 旣往 깬 김이니 時間이나 알자하야 時計를 보니 때는 午前六時로서 裡里到着時間을 앞두기 單七分이다。萬若이 때에 그애 우는 소리가 아니 엇드라면 나는 길을 지나처 가지고 그날(卽二十一日)午後四時의 南原講演時間에 대지 못할 번햇다。이 瞬間에 그애에게 對한 원망은 感謝로 變햇다。사람의 마음은 이러케 간사한 法이며 人事의 幸不幸은 모르는 法인가하야 새삼스러히 놀내엿다。

午前九時八分 南原驛에 到着하야 本報南原支局長 李斗用氏 南原邑長 李正根氏 東亞日報南原支局長 金業春氏 中央日報南原支局員 徐判吉氏等諸氏의 案內로 街路途中을 會見하면서 錦南館이라는데 宿所를 定햇다。廣寒樓는 歷史的으로 有名할뿐만아니라、今日(二十一日)내가 講演할 場所다。宿所를 定하고나서 나여 廣寒樓로 차저갓다。

朝鮮에 樓라는 이름을 가진 有名한 史的建物은 거이 다 山이 아니면 丘陵에 位置해 잇다。安州의 百祥樓가 그러하고、平壤의 浮碧樓가 그러하고、密陽의 嶺南樓가 그러하고、晉州의 矗石樓가 그러하다。그러므로 廣寒樓라기에 보기前에는 亦是、노픈데 잇는것으로 想像햇더니 정작 와 본즉 意外에 平坦한 市街地의 한복판에 노여 잇다。

보니、前記 어느 樓보다도 宏大한데 그러타고 雄壯味는 업스나 퍽 華麗해 보이고、外觀、內容이 거이 서울 景福宮內의 慶會樓와 恰似하다。慶會樓와 비슷하면서 構造가 그보다 훨신 크다。

歷史에 依한즉 廣寒樓는 李朝初期의宰相 南原出身의 黃喜政丞의 經營한바로서 爾來 四百餘年間을 두고 歷代府使、郡守等의 遊燕地로 되여 나려왓섯다고한다。

樓前에 人工湖水가 잇고、湖中에는 左便으로부터 右便에이르기까지 瀛洲、蓬萊、方丈、無名四島의 四個人造島가 一列로 橫在해 잇고、이모든 섬을 서로 連絡하는 다리(橋)가 잇는데 이것이 烏鵲橋다。烏鵲橋는 勿論 石築으로되여 잇는데 中間에 군데 虹霓門이 잇다。이 虹霓門이라는것은 마치 水原 華虹門의 水門가치 아ー치형으로 되여잇다。

네섬에는 樹木이 茂盛하야 一見 그림가튼 美景을 呈하는데 最左端의 瀛洲島에는 瀛洲閣이란 樓閣이잇서 가지고 更一段의 風致를 添加한다。

樓에 서서보면 멀리 西로는 蛟龍山城이 보이고、南은 開國山을 바라보고、東으로는 멀리 智異山을바라보게 되여잇다。

이러한 遠景、近景을 合하야 絶佳의 風致를 이룬것이 即廣寒樓다。廣寒樓를 一名 湖南第一樓라하야 樓上懸板에도 이 이름이 부터 잇는데 大槪 이 이름은 그實景에 適合한 이름이라는 느낌을 누구나 가질수밧게 업슬것이다。百祥樓、浮碧樓、嶺南樓、矗石樓等을 본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수잇는 일이어니와 이 모든 樓는 다 樓가 自然의 신세를 저서 아름다워 보이는것에 지나지 못하나、唯獨 南原의廣寒樓만은 自然이 樓의 신세를저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다。

「廣寒樓도 조커니와 烏鵲橋 더욱조타」는 有名한 春香傳의 一句다。春香傳은 勝景廣寒樓를 背景으로하고 생겨난것이다。李道令이 처음 春香을 發見한것은 廣寒樓에서다。이것이 機緣이 되며 道令李夢龍과 妓生의 女息成春香과의 戀愛는 成立햇다。그러니까 廣寒樓는 李道令、成春香 두 사람의 戀愛를 나코、兩人의 戀愛는 典型的烈女를 나엇다고 볼수가 잇다。

春香傳과 廣寒樓와의 사이에는 이러한 因緣이잇서서 그곳은 烈女春香의 祠堂이 잇고 祠堂內에는 烈女春香의 影이 잇다。

廣寒樓가 朝鮮十三道坊坊曲曲에 宣傳된것은 春香傳때문이요、春香傳을材料로하야 이것을 宣傳하는 任務에 當한者는 爾來 數百年間의 광대諸氏들이엇다。그러나 廣寒樓는 有名한 春香傳을 내인 自然的背景이 되엿슬뿐만 아니라、風致絶佳한 廣寒樓는 春香傳을 기다려서 비로소 價値를 認定될者가 아니다。비록 春香傳이 업다고 할지라도 湖南第一樓의 價値를 이를 者가 아니다。

南原의 景致는 勿論、廣寒樓가 根幹이 될것이나 西便의 蛟龍山城을 爲始하야 周圍의 諸山、特히 南原市街의 南端을 東西로 貫流하는 蓼川의 맑은 물은 南原의 風致를 그리는데 잇서서 업지 못할 景致의 要素물이다。

아페 蓼川을 둔 南原市民은 녀름에 더운줄을 모르고 지난다。現在의 廣寒樓를 좀더 規模를 크게하야 現代式遊園地를 만들고 蓼川에 人工을 加하야 풀(水泳場)을 만든다면 南原은 能히 全朝鮮의 遊覽客과 避暑客을 誘致하야 … 圖할수가 잇슬것이다 (寫眞은 南原廣寒樓全景)

平生文相의態度注目

義務敎育延長案 主旨는政府容認

重要國策에脫落된代身向上策硏究

【東京電話同盟】平生文相의 義務敎育二個年延長案은 近近 決定할 重要國策線上으로부터 脫落하게되엇스므로 이에 對한平生文相의 態度는 非常히 注目되고잇다 그런데 文部省의 義務敎育延長案에 關해서는 內閣調査局方面에서 根本的으로 反對意見을 가지고잇는데 廣田首相은 國民敎育向上이란 主旨에 對해서는 根本的으로 容認할模樣이나 그實行方法에 關하야다시 硏究할 必要가 잇다고하다 即 廣田首相은 文部省이 主張하는 義務敎育二個年延長이라는 形式的인 右案을 重要國策으로 採擇지는 안흐나 國民敎育의 向上을 圖하는것은 重要國策을 決定할 重要問題이다 따라서 今回의 重要國策中에서 平生文相이 抱懷한 義務敎育延長案이 脫落되더라도 政府는 어떠한 方法으로 國民敎育의 問題를 眞摯하게 硏究하기로되어 暫定的으로 敎育調査機關을 設하야 具體的方法을 立案시킬 意圖인모양이다 그런데 現在의 高等小學校、青年學校의 內容을 擴充하야 얼마後에 義務敎育年限이 二個年延長된 境遇에 即時 高等小學校로 轉換시킬 方法을講하는것이 合理的이라고하고잇다

李、白兩氏에

蔣氏最後의勸告

【上海三日發同盟】蔣介石氏는 一日附로서 李宗仁、白崇禧兩氏에 對하야 中央의命令에 速히新職에 就할것을 慫慂한 懇切한 長文電報를 發하얏는데 右電報 最後에 最短期間內에 廣東에赴하야 膝을交하야 李、白兩氏와一切를 商談決定할意思가 잇다는 것을 明白히 하엿다 右는 李、白兩氏에 對한 蔣氏의 最後的勸告로 보인다

西班牙의內亂에 英伊에中立要請

佛國閣議에서決定

【巴里發同盟】佛國政府는 西班牙內亂이 重大한 國際問題로 變化되려고하는 情勢에 鑑하야 一日午前臨時閣議를 開催하고 左와如히 對策을決定하엿다

一、西班牙在住佛國民의 生命財産保護에 萬全을期할것

一、佛政府는 西班牙內亂에 嚴正中立을 維持함과 同時에 英伊兩國에게도 同一한 態度를要望할것

一、英伊兩政府가 佛國의 提言을 受諾한때는 西部地中海諸國의 全部에 對하야 同樣의 提言을할것 但外國이 叛軍에게 武器를 供給하는以上 佛蘭西政府는 行動의 自由를 가질것

一、墨西스外相으로부터 佛領모록코에 伊太利의 飛行機가不時着한 事實의 詳細한 報告가 잇섯스나 모록코官憲에게서 正式報告를 接受한後 伊太利政府와交涉 흑은 適當한 措置를 取하기로 되엿다

英原則上無異議

【倫敦一日發同盟】佛國政府가 西班牙內亂不干涉을 目標로 하고 新交涉을 提議한데 英國政府가 如何한 態度를 가질는지 豫測키 어려우나 英政府로서는 內亂不干涉에는 原則的으로 異議업고 다만 그實現方法에 對하야 相當히 意見을 달리하는모양이다

西內亂推移에 콤민테른焦燥

【莫斯科發】西班牙의 內亂은 다시 … (以下 判讀不能)

總督府歲出豫算 各局說明聽取中

財務局에서는 目下各局豫算案說明을 聽取하고잇는데 財務局으로서는 大體로 十日頃까지에 說明聽取를終了하고 水田司計課長이 八日又는 九日에는 歸任할것으로 同氏를기다려 마치내本格的査定을開始하리이다 그리고 鐵道局專賣局은 도計數整理가 完了되지못하야提出치못하엿고 學務局도 中等敎育調査會의 議論이 最後決定에이르지못하엿슴으로 明年度의 中等學校擴充計畫이 決定되지안코 따라이部分의豫算案이未提出인等 各局의要求案이모다提出되지아니하엿슴으로 豫算의全貌가 果然어느程度의것이지 직 推算할수업스나 이 三四日中에는全部提出될模樣이다

鮮滿拓殖 設立委員을任命

鮮滿拓殖會社 創立準備委員會는 來十日 設立委員會는 翌十一日 各各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기로되어 今井田政務總監을委員長으로 矢島農林局長以下 各關係方面의 二十六委員을 決定發令하엿다

人事・集會

▲今井田總監 明四日午前 二時五十五分着 히까리號로 歸京豫定

本社辭令

(八月三日付)

社長兼營業局長 方應謨
解營業局長兼任
大阪支局長 金光洙
任營業局長兼大阪支局長

夕刊後市況 三日

◆大阪 短期 無配◆
大新 六七三〇 (不變)
鐘新 一五八三〇 (一〇低)
日産 七八八〇 (不變)
東新 一二三〇〇 (一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五四〇〇 先限 七五七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三〇〇 先限 六〇九〇

貿易並委託業 大有公司
奉天小西關電車路北一二六
柳行李原料大量輸出
營業種目: 海産物並乾材藥材 穀物貿易竹製細工品 各種皮物木材原木 果物類海苔委託買賣
品質은絶對保證 價格은 自五尺至六尺純白色 每一貫에四十錢 五尺以下는三十七錢以下
注文時는三割以上의先金要 送料及關稅는注文主負 右와如히大量輸出하오니製造家諸氏는品切되기前에速히注文하시라
●仰乞時勢表請求 ●時勢問議時品名指定
電話城內局(九)二五五九番 振替口座奉天二二四四番 電略(タイ)又ハ(タイユウ)

佐波醫學博士秘法 メウヂン短期療法公開
腦神經衰弱
無料로 五年間의苦惱를업시한 나의貴한體驗을말함
여러가지藥을먹어도 낫지안는분과 조흔藥과 조흔療法을알고십흔분
記憶力減退 頭重으로腦가나뿐분 視力減退、性的障害 記憶力이조치못한분
事物에倦怠를느끼기쉬운분 히스테리ー인분 頭痛眩氣잇는분 房○不能인분
空然히怒하기쉬운분 밤잠잘못자는분 事物에對하야煩悶하는분 젊어지고시픈분
東京市小石川區東青柳町一三 敬神福德會 健康相談部主任

創立明治參拾貳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收益多大 人絹、綿布、セル、ネル卸 別珍本絹一二等品 ハギレ高橋淸商店 大阪市南區末吉橋東詰 取引銀行 三和 住友

中央館 野球大當り バスター・キートン 夜明け鳥 曉の爆音 惡魔島脫出 미ー라의殺人 百萬石加賀の若殿

第一劇場 따ー크엔젤 雪之函變化 百萬番의感激 空中을나는音樂 追分三五郞

團成社

本社主催 白頭山探險先發隊 三日午後、勇躍、京城驛出發

探險의準備次로 編成된 "本社特派陣"

聖地靈峰의 "길앞잡이"—李、方兩社員

驛頭歡送裡에 一路茂山에!

동방조선의 진산(鎭山) 백두산(白頭山)은 유사이전은 말할것도업고 유사이후만이라도 "근오천년간이나 그성스럽고 엄연한영자로서 이땅우에 생을바더 나고죽고 죽고나고한 몃천만 몃억만의 영웅재자의의 겨레를 어머니와가티 포옹하여주고 그들의문화발전을 아츰이나 저녁이나 변함업시 바라며 빌어주엇것만 우리는 아즉까지도 개인으로나 또는 단체적으로나 참근(參覲)하야 의의잇게 과학의메쓰로 그모체를 해부하여보고 그근원을 탐사하여오지안엇섯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전연성의가업슴이아니라 긔회가적엇든까닭이엇섯다 이에본사는 오랫동안의 희생과 만흔고초를 무릅쓰고우리겨레로서 유사이래 아즉까지한번도업든 백두영봉탐험계획을 세우고 만천하독자에게 계획을발표하자 불과이삼일내에 참가신청이 답지되야 할수업시 특별참가자의외 일반참가자에는 추첨으로 참가자이십사명을 결정하야 본사특파대원사인과 활동사진반등 모다삼십명은 드되어 칠일오후세시오십분차로 력사적장도에 올르게되엿다 이 출발에 압서 본사특파대원 리상호(李相昊)방재윤(方在胤)량씨는 경비대(警備隊)긔타연락과 현지설비를 충분히하고저 선발대(先發隊)로서출발케되야 백두영봉밝아래 무산(茂山)을 향하야 삼일오후세시오십분발 경함선급행렬차로 본사사원미유지 제씨의 열렬한전송리에 경성역을 떠나용감히장도에 올랏다 (사진은 역두의출발측전、○표가리본사사회부장(李社會部長)×표가방(方)사원)

脫線된友情—

동무위해 도적질한 미련한 少年의犯罪

동무를위하야 절도한 미련한어린소년—화원정(花園町)구십번지 백동이(白東伊)의집에 잇는 주병의(朱炳義)(一七)는 고향인 전남 진도군 어신면(全南珍島郡於新面)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수일전 동무인 김도환(金道煥)(一七)이와 함께 서울에와서 이곳저곳에 취직운동을 하다가 주병의는 주천긔소에 취직하게되엿스나 김도환이는 취직을못하고 가진노잣차 떠러저 잡자리를 어둘수업는 궁경에 빠진것을보고 어린마음에 의협심(義俠心)을 느끼고 리웃집 책점에서 책세권을 훔처서 그것으로 려비를 만들어 동무를 시골로보내려다가 그만 발각되엿다한다

靜岡縣下 教育界不正事件

【記事解禁】【靜岡電話】 정강현(靜岡縣)하의 소학교교원(小學校敎員)의 부정사건은 지난 륙월이일 신문게재를 금지하고 취조중이엿든바 삼일오후네시 해금(解禁)되엿다 사건관계자는 교장 상석이명 훈도다섯명 정강시교육과장겸 교육회간사(靜岡市敎育課長兼敎育會幹事) 일명 시학(視學)일명 정촌역장(町村役場)서긔일명 동리원(吏員)일명 신관(神官)일명 합계 사시사명의 다수에 달하는 교육계의 일대불상사이다가 피고는 공모하야 사문서위조변조행사사긔배임(私文書僞造變造行使詐欺背任) 등의 죄명으로 고소당하엿다 사건발각의단서는 원정강시(元靜岡市)삼하소학교(森下小學校) 교장 석진룡치(石津龍治)(五〇)가 소화팔년이월하순경 강구어용저(御用邸)에잇든신목(神木)모찌리타를 정강시에서 학교에 하부이식하기로되엿슬때 학교출입의 묘목장사가 망용대로 다른곳에 이식한사실에 단서를어 곳정강서(靜岡署)에서 취조한결과 작년십일월 전긔 석진이가 그학교후원회 수석간사로서 협식상 교원회원을 모다 수석간사에게 일임한것을 긔화로 공사사례금긔타의명목으로 공금을 횡령소비한것이 판명되고 계속취조한결과 과 롱주구입 명목으로 공금을 위조변조하야 합계일천삼백여원을 횡령소비한것으로 금번오일 이십일일 송국하야 예심중결되여 유죄로결정하야 오는칠일 정강지방재판소(靜岡地方裁判所)에서 공판을개정할 예정이라한다 그리고 긔타관계자도 가튼지위를 리용하야 횡령한것인테비교적금액은 소액이라한다

自動車에 衝突

被害者는 絶命

【井邑】 지난팔월일일 오후두시에 정읍 운수주식회사 (井邑運輸株式會社)의김용학(金用學)(二三)이가 운전하고잇든 동회사의 자가용(自家用)자동차 이백이십일호가 동군고부수리조합 (古阜水利組合) 언덕길을 도라가다가 마침 모퉁이를 도라오는 자전거탄 청년일명과 정면충돌되여 자동차는 별고장이 업스나 전긔자전거는 산산히 부서지고 자전거 청년은 두골과 복부를 몹시부대처서 혼도되여 잇는것을 비로자 동차에 태워서 정주유길병원에 입원하엿스나 응급치료를하엿스나 마츰내 이일 오전네시에 이세상을 참혹하게 떠나버리고 마럿다한다 그런데 당지경찰서에서는 전긔김운전수를 검속하야 방금 엄중취조를 하는동시에 시체도 동병원에 의뢰하야 해부한결과 뢰진탕(腦振盪)으로 인하여 죽은것이 판명되엿는데 그청년의 주소성명은 아즉까지알수업다한다

少女轢傷 【井邑】 정읍자동차주식회사(井邑自動車會社)의자동차운전수 정판수(鄭判洙)이가 운전하는 록백칠십륙호의 자동차가 지난 이일 오후 두시경에 정주읍을 드러오다가 당지 군청아페서 금년팔세의 어린소녀를 떠바쳐서 면상과 두부에 중상을입고 바로 당지 삼남병원에 입원하며 응급치료를하야 생명에는 별로 관계가 업다하나 완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리라는바 전긔 소녀는 전남장성군 북상면 오월리(全南長城郡北上面梧月里)의 리모(李某)의 딸 리정희(李貞姬)라 한다

全南道內各地方에 稻熱病이 去益蔓延

光山、光陽、靈光、康津等尤甚

一般農家의 不安甚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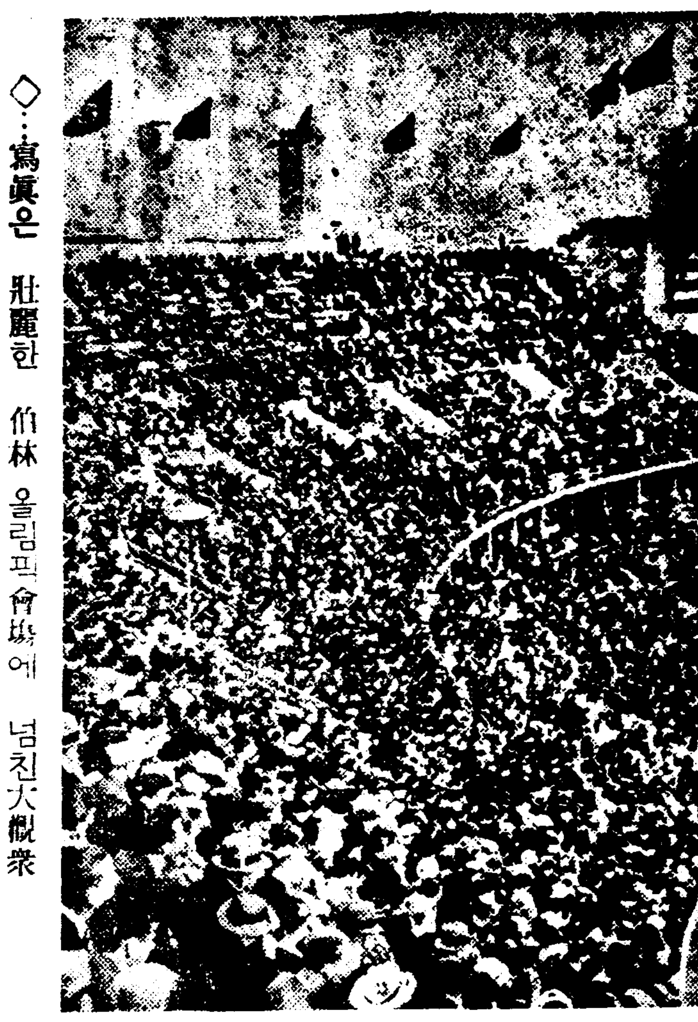
【光州】 전라남도는 금번호우이후 에들어 우량의 충족과 순조로운 온도에 대풍작을 예상케하든바 금일에이르러 의외에도 도열병(稻熱病)이 발생하야 전남각지에 만연상태에잇서 그피해가막대하다는바 아직 자세한수자는 알수업스나 도에서도 제일피해가 극심한군은 광산 광양 영광 강진(光山、光陽、靈光、康津)등의 각군인대 농무과에서는 도내각군에 통지하야 피해액을조사중이라하며 그방역에 전력하고잇다는데 일반농가에서는 퍽 우나 불안에 차히여 매우공포를 느끼고잇다 한다

兩圈에 들어간氣象圖

五日엔颱風襲來

—三日午前仁川觀測所發表—

【仁川】 개인다음날은 중국중부(中國中部)에 발생하여진 사시를미리의저기압(低氣壓)의 영향을바다 조선은 도다시림후(霖雨)권내에 빠지고잇는듯하야 삼일오전 구시현재가지우량은 ▲新義州一〇미리▲平壤一八미리▲城津一八미리▲全州五미리▲元山四미리▲秋風嶺一미리▲大邱二미리▲釜山一〇미리로서 현재목포(木浦)와제주(濟州)는소우(小雨)가 나리고잇스나 중국중부양자강(揚子江)하류의저기압이 북동(北東)으로 진출하고잇슴으로 이제부터는 중부이북에강우가잇스리라하며 비률빈(比律賓)근방에서발생한 칠배사의 태풍(颱風)은 남중국으로 하등피해가 업슬듯하엿든것이 동면 시속(時速)십오키로의속도로 북북동(北北東)으로 진행하고 잇슴으로 오는 사일천시대이나 오일오전에는 중부이남에 습래하리라는데 동세가 가장심한것으로 피해정도가 가장주려되다하며 현재잇는지점은 북위(北緯)이십팔도 동경(東經)일백이십팔도로서 남경(南京)으로부터남쪽으로 사백키로를 떠러저잇는지점이라한다



◇…寫眞은 壯麗한 伯林올림픽會場에 넘친大觀衆

天安某鐵道會社의 幹部를召喚取調

某通信社事件에關聯하야

贈收賄事實이綻露?

약일개월전에 본정서에 검거되여 수일전일건서류와함께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된 내모 통신사사장 정상(井上)일파의 공갈사건을 취조중 충남(忠南)천안(天安)에 본사를두고 잇는 모철도회사에관한 추악한 사실이 탈로되어 그간그서에서는 엄중히 내사중이든바 지난 일일에는 그서사법계 평림(平林)경부보와 곡박(谷迫)형사부장이 천안(天安)까지 출장하야 회사내정을 조사한후 이일귀경하엿스며 서장이하 사법주임등과 협의하는 한편 그날아침 전긔철도회사의 간부모씨를 그서에 소환하고 취조를 개시하고 잇스며 형사대는 모씨의 가택을 수사하는등 긴장한활동을개시하고잇다 그런데 사건의내용을 들으면 전긔회사와 감독관청의 모고관 사이에 수년전 모지의 자동차선로 매수에 대하야 증수회(贈收賄)혐의 라고 하는데 사건의 추이는 대단주목 된다 그리고 삼일아침에는 형사대가 룡산(龍山)방면에 출동하야 계속하야 내사중이다

臨時船舶職員試驗 체신국원산해사출장소(元山海事出張所)에서 오는팔월일부터 림시선박직원시험을 보이기로 되엿는데 그시험종류는 을종이등운전사시험(乙種二等運轉士試驗)과 연안(沿岸)을종이등운전사시험과 연안병종운전사시험과 연안발동긔선사등의긔관사시험의 다섯가지라한다

京城↔福岡間 直行空輸

【福岡電話同盟】 이번비에 수해를입은 울산비행장(蔚山飛行場)은 륙일까지 착륙이 불가능하게 되엿슴으로 일본공수(日本空輸)에서는 복강(福岡)—경성(京城)、경성—복강간의 상하정긔편이 부득이 중지하는수밧게업시되엿는데 근자에 항공편리용의 려객과 우편화물이 격증하는정세에 비추어 울산비행장의 복구까지 만연히 기다리다

龍王廟에 土兵團 人質百名拉去

安東警察隊急據出動

【安東縣】 지난이일 오전삼시경 봉성현 제삼구룡왕묘(鳳城縣第三區龍王廟)에 연생당(聯生當)두목이 인솔한 토병 오십명이습래하여 홍기가(紅旗街)경찰대와 동여섯시까지 격전하다가 도망하엿다는데그들은 갈때에 민가십호에 불을질르고 인질백여명을 압세우고갓다한다 이급보를바든 안동경찰서원은 오전십시경 토벌차로수십명이 자동차로 급거 출동하엿다한다

리야카에轢傷 삼일 오후다섯시삼십분쯤에 시내 대화정(大和町)이정목 십륙번지아페서 본정(本町)사정목 목촌약방(木村藥房)에 점원으로잇는 구자화(具滋和)(二〇)가 타고가든리야카—에 대화정이정목 사번지에사는 등야태치(藤野泰治)의 삼남 풍(豊)(六)이가 치어서 전치 약삼주일을요할 상처를입고 식목병원(植木病院)에서 치료중이라한다

馬麻里罹災民 目不忍見의慘狀

婦人會에서應急處置에沒頭하나

災地엔벌서惡疫流行

【金海支局特電】 김해 마마리(金海馬麻里)리재민 일백십오명은이번수재로 집과 가장즙물(家藏什物)을 일허버리는것은물론 어버이를일코 로두에 방황하는어린이등 일로 목불인견의 참상을 보이고잇서 부락에 일백십오명의 리재민을 전부 난호아 수용하엿다 이비참한 광경에 당면한 김해읍에서는 그들 리재민의 칠일간의 식량으로서 백미십팔두를 배급하고잇스며 기타 김해부인회에서 현금 삼원오십전과 금주부인회에서 보리여섯말을 기부하는등 응급치치에 몰두하고 잇는데 지금현상으로는물론 식료품에대한 일반의원조는물론 여러저러서 환자가속출하는 현상임으로 의료반의 래원도절실히 느끼고잇다 그리고 오날아침부터 도다시비가 오기시작하야 주민들은 큰심에잠겨잇다

뒷山이문허저 一家族七名埋沒

一名은卽死코、六名은重傷

暴雨로統營郡下慘事

【釜山】 폭우로 말미암아 경남각지에 이러난 인생비극의 일막—지난일일 오전여섯시경에 통영(統營)에 조일정(朝日町)(六四三)번지 박북우(朴福佑)의집 뒷산이 문허저 집이 넘어지는바람에 일가족칠명이 파묻처잇는것을 이웃 사람들이 발견하고 구출한결과 그중일명은 즉사되고 륙명은 중경상으로 목하 명제의원(明濟醫院)과 수천당의원(壽天堂醫院)에 수용하야 응급치료중인데 그중중상자 의명은 생명이 위독하다한다 그런데 전긔즉사한 한모(韓某)

海流따다沿海州로

咸南沿岸鰮獲皆無

比前年同期漁獲高四分之一

三萬餘漁民極恐慌

【咸興】 함남도연안 삼만여명의 어민들의 생활을 좌우하는 정어리(鰮魚)는 작년이맘때부터는 거이한통도 잡히지안코 잇다 이십오일 현재의 어획고는겨우 사만오천통가량으로 전년동긔의 십팔만통에 비하면 사분의일도 못되는 비참한 형편이다 일주일전까지는 잡히지 안는다고 하드래도 매일사오백통내지 근천통식이나 잡히엿는데 최근일주일동안은 한통의 어획도 보지못하야 어민들은 파심하고 잇다한다 이러케 정어리가 잡히지안는 것은 미증유한일인으로 사백여공장과 무려륙천여명의 종업원은 한달동안이나 휴직상태에빠저잇스며 삼만여 어민들도 금후 생활문제가 자못 문제된다 도수산계 기술자의 말을들으면 오어는 해류(海流)를따라서 연해주(沿海州)방면에 몰려가고 잇는대 가을철에나 다시 남하할터이니 그것을 기다릴수밧게는 업다고한다

天道教靑年同盟 夏期講座開催

시내경운정에잇는 천도교청년동맹본부에서는 오는팔월오일부터 일주일간 하기강좌를 동교중앙교당내에서 개최한다는데 강좌과목은 천도교리를 중심으로 하며 그이외로한글과 과학(科學) 강화가잇서 특히 그강사로 조선어학회 정인승(鄭寅承)씨 발명학회 김용관(金容瓘)씨를초청한다하며 이강좌에 지방동맹원의다수참강으로 성황을 예기하고잇다한다

數字的의集計로는 傳染病發生數減少

경성부내에서 칠월한달 동안에 전염병의 발생자총수는 이백팔십일인이데 작년칠월에 비하면 일백일명이 적어젓다 이가운대서 적리환자는 이백륙명으로총발생수효의 칠할삼분강(强)이나되다 그리고 장질부사는 삼십삼인이며 그밧게 다른병은 사십이인으로 한계 칠십오명인데 총발생수의 약이할칠분가량이다 칠월일일부터 십일까지 칠월십일일부터 이십일까지 륙십일인 칠월이십일일로부터 월말까지일백한명으로 하순에드러 무척만히 발생하엿다 작년일월부터칠월까지 경성부내에서 발생한 전염병환자는 일천삼백팔십팔인인데 금년일월일부터 칠월까지 발생한 환자수는 구백사십팔인으로 작년에 비교하야 전체에잇서서는 사백사십명이나 적게발생하엿다한다

◇…伯林↔東京間無線電送올림픽寫眞第一報 (左는國際올림픽委員會에서 히틀러總統代理 헤스無任所大臣의開會辭—八月一日午前五時三十分伯林發電送實驗寫眞、右上은伯林올림픽 開會式에 히틀러總統의 宣言光景、右下는 올림픽委員會散會後 日本委員과 委員長 라트르伯의 記念撮影(中央이 라트르伯) 八月二日午前零時 伯林發電送

伯林올림픽 第三日

曇天으로入場少數

【伯林올림픽스타디욤三日發同盟特派員】 世界올림픽 第三日은 흐릿한날씨로 스텐드는 前日에比하야 少數로서七分쯤의 入場이엿섯다 이날午后에 擧行할豫定이든 投擲競技는 午前十時半(伯林時間午後六時半)으로부터 스타디옴正面에가하잇는 「써—클」의 右側을 利用하야 豫選標準記錄四十六米로서行한바 이날豫選通過者는 十八名이다

投鐵鎚豫選經過

【伯林올림픽스타디옴三日發同盟特派員】 投鐵鎚에 出場한 岡部功選手는 四十六米三十으로 豫選을 通過하엿고 松野榮一郞選手는 四十五米九十九로 落選되엿다

四百米障碍豫選中止

【伯林올림픽스타디옴三日發同盟特派員】 四百米障碍第一豫選은 三日午前十時半에 擧行할豫定이든바 事情으로 因하야 中止하고午後에는 第二豫選을 行하기로되엿다 投鐵鎚는午前中으로당 [illegible]

豫想外로不振

日本陸上軍、村社田氏健鬪

【伯林올림픽스타디옴三日發同盟特派員】 陸上第一日에 終了한바이 날 日本陣은 豫想外의 不振으로 沖田코、쉬는 다음과 가티 感想을 말하엿다

豫期에反하야 百米에 所期의 實力을 發揮치 못하엿든것은 意外의일이다 吉岡의敗退는 日本陸上陣營에 一抹의 暗影을 던젓스나 이것으로 오히려 치안코 今後에잇서서 더욱 奮鬪할것이다 「오웬스」의 速力에는 생각한것보다 더욱놀랏다 그가가지고잇는 後半加速度는 「허르캄프」 以上의것으로 驚異的이라고 할수밧게 別形容이업다 山本選手는 遠征後에 더욱好調를가지고잇서 芬蘭에서 四十米를 投擲하야 크게期待를가젓스나 日本에잇슬때와가티 投力이나지안흔것은 遺憾이나 할수업는 일이다 村社는 日本記錄을 作成하야 全力을 다하야 싸운것은 滿足하며 아프로 五千米의 對戰을 크게 期待한다 結局 五千米는 村社對芬蘭의 一大接戰으로 終始될것이다

기어擧行하엿다

陸上二日總評

【올림픽스타디옴三日發同盟特派員】 大會 第二日 [illegible] 百米에 白熱的 [illegible] 하엿스며 [illegible] 女子投擲의 [illegible] 이날 [illegible] 픽大會에 [illegible] 的이 女子投 [illegible] 「루이게·그[illegible]」 하야 果然 [illegible] 이여 [illegible] 十五個의 [illegible] 노피 揭揚되 [illegible] 새롭게하엿다 [illegible] 을 어든것은 [illegible] 活躍한것이다 [illegible] 味는 [illegible] 豫想을 [illegible] 國旗를 揭揚 [illegible] 走高跳에잇서 [illegible] 旗를 揭揚케 [illegible] 實이엇다 日本은 이날 [illegible] 技 鈴木朱雀 [illegible] 三位에 入賞 [illegible] 國旗를 揭揚 [illegible] 田伯의 不在로 因하야 揭揚치 못하엿다。 어쨋든 陸上競技의 全面的不調는 日本으로하야금 期待에 버서나게되여 結局 日本은 水上에 [illegible]

都市野球降雨로延期

大會主催의 第十回都市對抗野球大會 第三日 第二回戰의 [illegible] 田對 [illegible] 은 三日午前十時半부터 明治神宮球場에서 擧行할 豫定이든바 降雨로 因하야 모다 今四日로 延期되엿다

오웬스의十秒二

世界記錄不公認

【伯林올림픽스타디옴三日發同盟特派員】 올림픽大會初日百米第二次豫選二組에서 吉岡選手 獨逸의 [illegible] 헨니—와 [illegible] 어 十秒二의驚人的記錄을作成한 米國代表黑人의王者 오웬스의 世界記錄은 [illegible] 追風을理由로 [公認]치 안키로 三日의올림픽委員會에서 決定하엿다

올림픽劇出演

第一回마라손覇者

【伯林一日發同盟】 一八九六年의 第一回 올림픽·마라손에 優勝한 現在六十五歲의 「스피리돈·루이스」翁은 지난 三十日 午後 希臘 아텐스로부터 伯林에 [illegible]

競技의 活躍을 期待할뿐이엿다

到着하야 八月一日 開場式에서 故國의 「올림피아」에서 聖火를 [illegible] 의가지를 올림픽 擧行의 「히틀러」總統에 贈呈하엿다 그리고 루이스翁은 올림픽劇 第一幕에 出演할 重要人物이다

올림픽大會에

野球編入運動

【伯林卅一日發同盟】 올림픽代表 三十一日午後에 會合하야 野球競技를 올림픽大會의 「프로그람」에 編入할件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其具體的促進을 爲하야 먼저 國際野球協會準備委員會를 組織하기로 決定하고 其他役員의 銓衡을 行한바 米國代表 「레스리·맨」氏를 準備委員長으로 또는 테니스氏를 委員會總務로 指名하엿다 國際野球協會는 來週중은 正式으로 그 成立을 보게될터인데 여기에 參加할나라는 日本 英國 米國 佛國 中國 墨西哥 智利 和蘭 加奈陀 白耳義等의 十個國으로 豫想된다 하야 野球의 『아마추어』 試合을 널리 世界的으로 基礎를 세워서 擧行할 意圖인 바 [illegible]

朝鮮代表庭球團一行

宇治山田市에到着

올림픽에 參加하야 다음과가티 [illegible] 第十二回全日本庭球大會가 東京에서 [illegible] 朝鮮代表선수 [illegible] 八月一日에 京城을 出發하야 三日午後五時에 宇治山田市에 到着한바 모다 元氣旺盛하다고 한다

養正陸上同友會

來九日百合園서

養正高普陸上競技同友會는 來九日午後三時부터 東小門밧 百合園에서 열니는데 會費는 每人一圓이라 하는바 同校卒業生諸氏의 無漏參席을 바란다고한다

◇第四日(四日火曜) 今日의올림픽

▲陸上競技 (1)走幅跳豫選(午後六時三〇分) (2)女子百米豫選 (3)二百米第一次豫選(午後六時三〇分) (4)四百米障碍準決勝(午後十一時) (5)女子投圓盤決勝(午後十一時十五分) (6)二百米 第二次豫選(午後十一時半) (7)女子百米 決勝(午前零時半) (8)走幅跳決勝 (午前零時半) (9)四百米障碍決勝 (前一時半) (10)八百米決勝 (前一時四十五分) (11)五千米豫選 (前二時)

▲레스링 (1)自由型輕量級決勝 (午後六時) (2)自由型決勝(午前三時)

▲하키豫選 (午前零時半)

▲蹴球—(伯林球場) 第一次試合 (午前一時)獨逸對룩센불그、日本對瑞典(金容植君出場)

▲요트豫選—(키—르港)午後六時半

▲近代五種 午後五時 (와지—射擊)

▲劍術 午後五時 體育館 ▲빨로 午前零時 (빨로競技場)

◇◇◇◇◇◇ 今日의運動 ◇◇◇◇◇◇

▲蹴球—英艦隊蹴球團對 全京城軍戰 午後四時半 京城運動場 (觀覽料 一般卅錢、學生廿錢)

英國艦隊水兵 夜間上陸禁止

【仁川】지난일일 인천에입항하야잇는 영국군함「도셋트쉬어ー」(Dorsetshire)호는 함장「마레」씨의 지휘하에잇는데 흉년그의일부터 수병들의야간상륙을 항장으로부터 금지식히고잇다는데 그리유는 과반이천항에 입항하얏든「아메리카」와「인뽈리쉬」의 한대수병이 야간에상륙하야 가진추태를 연출하얏든 관계라한다

岩根 山手町堤坊工事로 五十戶基地買收에紛糾
時價의折半만바드라고하야 住民들不滿陳情交捗

총독부 내무국에서 시행중인한강치수로이하알근정(岩根町)과산수정(山手町)간의제방(堤防)공사로 신설되는마포(麻浦)알근정 산수정간의 도로가통과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게될으로 알근정의 상십이호와 산수정의십오호 가합리게되여 겨우오막사리나마 자리잡게되엿든 주민들은 또다시 주택난에 부드치게되여지난달팔일에 총독부내무국 토목과를 장소에 굼번도로의 통과하는지점이 경전(京電)동산발전소를지나게하여달나고 진정하엿스며최악의경우를 예상하야 도로가통과의 중간을 통과하게 되여도 토지가격을 상당히줄것이며 이전비등도 고려하도록 하여왓섯는데 동토목출장소에서는이상일전부터 상시인식 호출하야 평당(坪當)십구원내지 이십삼원으로 시가의 반가격밧게 되지안는계약을하려고함으로 주민들은 당국의 무성의를 분개하는일방 동민대회를 열고대책을 강구하는중이라는데 불원에 재차당국자에게 진정하리라고한다

交通事故는 自動車가首位
東大門管內의上半期統計 人命傷害百卅餘件

도시가발전향을따라 교통량(交通量)이 부르면부를수록 교통사고가 늘어가는것은 현대도시생활자에게 큰공포와 위협을주는것으로 각관계당국자들은 사고방지에 전력을하고잇으나 무엇보다도 제일효과적인것은 길로다니는 사람각자가 부단의주의를하는것이다 이제참고로 시내동대문서 관내에서 발생한 금년일월일일 부터 륙월말일 까지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건대 총건수가 일훈두건에 희생자가 다섯명이요 부상자가 백삼십일명이란 다수이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와 갓다

	件數	死者	負傷者
▲自動車			
衝突(人)	二六	—	二五
衝突(諸車)	一六	—	一一
顚覆	三	一	一
飛乘飛降	一	—	一
其他	五	三	二
合計	五一	四	三九
▲電車			
衝突(人)	八	—	八
衝突(諸車)	四	—	四
飛乘飛降	四	—	四
合計	一六	—	一六
▲私設鐵道			
衝突	三	一	七四
飛乘飛降	一	—	一
合計	四	一	七五
▲國有鐵道			
飛乘飛降	一	—	一
累計	七二	五	一三一

十九팀參加로 蹴球大會盛況
炎天下에熱戰展開

【永宗島】 영종도청년회(永宗島靑年會)주최와 본보영종분지국 후원의 제삼회영종축구대회(第三回永宗蹴球大會)는 지난일이량일간 영종보통학교정구대에서 조선축구협회심판부(朝鮮蹴球協會審判部) 정문기(鄭文基) 전유항(全有亢) 김명연(金命淵) 리영천(李永善)기타 제씨의 심판으로 드되여 육리전이 전개되엿는데 참가단체 이십일팀중 사정상 불참한 관계로 리태원(梨泰院) 도안(敎岩) 휘안(輝安)등 삼팀이 기권한것은 유감이나 날어지 십구팀 이백오십여명의각 각 팀중의 자세로 최후의 용긔를다하야 선전(善戰)하야 만여관중을 열광도취식힌것은 종래보선운동계에 잇서서 일책이 될만하든 것이바당현상이라 하겟다 그리고 제일이량일간 진행된 예선전의 전적은 아래와갓다고한다(사진은 蹴球大會光景)

孝勝—[illegible]
□兒團—同□
血聯—新光
永新—靑光
龍山蹴球—永□靑
東氷庫—飛虎
新活—李勝
□院—安岩

(賞)南自動車—샷뽀로

南自動車—仁川町
血聯—永新
新活—東氷庫

三名少年窃盜 開城商街를威脅
犯行件數三十餘回

【開城】 지난 삼월중순부터 오늘까지 약사개월동안을두고 개성남대문통네거리 큰상점만주로골해서 매일밤죽출하는 자봉뒤와 괴대절도단은 그간경찰의 눈을리를 무지럭히드니 지난이십칠일에야 드되여 체포되엿다 체포된 삼인절도단은 아죽저녀가나는 십삼세된 소년들로서 한량은 부내고려정(高麗町) 사는 김복진(金福鎭)(一三)과 동명은 동본정(東本町)에 이번지김한복(金漢福)(二一)서본정(西本町) 윤여지(尹如知)(二一)으로써 이들 세소년은 평소에 마음이 불량하고 군것질이 심하야 그들은 지난 삼월중순이일밤 물건을 절취해팔어 과자와「아이스크림」을 사먹기를 공모하자 새벽한시경 북본정(北本町) 배윤재(裵允在)시계점에 진열장을 파괴하고 시가 사원가량되는 시계한개를 훔처낸것을 비롯외 시초로 오늘날 소도적이되기까지 그들의범행은 점점 대규모적으로 드러가 매일밤 각상점을 침입해 시계,양화,구두,현금등 다수한 물품을 절취하기를일삼게되엿고 나중에는상외연답한 절도하는데 도적단으로 화하게되여 자못 상민의인심을 불안케하든바로 피해상점만해도 삼십여곳 피해금품이 삼백여원가량이나 될모양인바 판명된 피해자씨명은 다음과갓다

時計商=裵允在
洋靴商=[illegible]、崔方鎭
精米業=[illegible]、閔明植
雜貨商=[illegible]、崔光鎭
고무商=陳泰吉
藥物商=高相大、宋致[illegible]
陶器商=尹[illegible]
酒類商=金在三
牛肉商=[illegible]

慘!鰒魚"국"먹고 一家族八名中毒
자녀칠명을남겨고어머니는사망 仁川牛角里의慘變

【仁川】 복어국먹고일가족팔명이 중독하얏다는놀나운사실—인천부(仁川府) 우각리(牛角里)이십번지 김근배(金根培)의처방금례(方今禮)(三二)는 지난이일점심때에 복아지두마리를 사다가 국을 끄려서자녀삼명을 다리고 먹엇든바 그때는 별고업섯스나 그날 저녁때〃지지미〃를 만들어 칠명의자녀들을 먹이고 그찍거지를 전기방씨가전부먹엇든바 약한시간반후에 방씨와칠명의자녀들이 복통을 일으키여 신음하든끄테 칠명은 구조되얏스나 전기방씨는 맛참내 무참히도 이세상을 떠나고 말엇다 주부의 녀자된 설움의 한토막이 연출되엿다 한다

火葬場의銅管窃盜 豪遊中에逮捕
仁川署에서嚴調中

【仁川】 화장장에 출입하는 기괴한절도=부천군다주면 사충리(富川郡多朱面士忠里)여일호(麗一浩)(二二)는 그의부친이 승기리(承基里)화장장의 소사로잇는것을 기회로 화장에가장중요도구인 구리「파이프」두개를절취하야 시가사백원가량의것을 십륙전에 매게한것을 인천서에서 탐문하고 지난이일 맛침내 체포하야 엄중취조중이라는데 가장교묘한 것은 독파이프」가 약천근가량되는것을 두개씩이나 절취하야 내것이가장교묘한것이라한다 그는주안(朱安)역전 모음식점에잇는 미묘의작부에 유혹되엿나어지의 범죄이엿다한다

飮毒한人妻

소위 권태긔(倦怠期)에 들어간 중년부부가 매일가티 일어나는 가정풍파에 부대기다못해 종엽으로써 해결하려든 가련한 안해—시내 상왕십리정(上往十里町)오백이십사번지의 사십오호 오한봉(吳學奉)(四二)의처 변옥채(邊玉彩)(三二)는 매일가티 이러나는 부부싸홈에 참다못해 삼십일일 아츰 여덥시쯤되여 양재물을 만히 마시고 고민하는 것을 집안사람들이 알고 부민병원에 입원을 시켜 응급치료를 밧고잇다는데 생명은그럭저럭 구할듯하다고한다

典當利子引下로 細民金融範圍擴大
本町署管內上半期에入質者六分增加 流質者는一割餘減

경제조직의 복잡화(複雜化)와 도시의 발전을 따라 발생하는일시의 현상의하나로 제사개급의 전당포리용의종가를 들수가잇다 이에관하야 자미잇는 통계를수일전 본정서에서 만드럿다 그수자를보면 그서관내의 전당포는 일본내지인 륙십호 조선인이 오호 모다 륙십오호의 다수에 달하고잇다 작년상반긔의 영업성적은 일개월 평균사백칠십명의 전당포리용자에 그금액은 사천이백 십오원을 융통하고잇다 그리고 금년 상반긔의 영업성적은 입질자(入質者)가약 륙부가늘고그에따러대부금도약사분가증가되엿다 금년의 특의한 현상은 전긔사실외에 유질(流質)이 약일활이부 감소되엿이다 이제 이수자가말하는바를 들으면 작년시월단행한 리자의 인하(引下)가 리용자의 종가를 일으키게한 큰원인의 하나로 들수잇고 다소의 경긔회복이 유질감소를 유도하엿다고하며 전당포가이땅에서 서민금융긔관으로서의 긔능을 확대하야 대중의 경제생활에대한 그중요성을 증대하고 잇다는편린(片鱗)을엿볼수가잇다

脫走兵行方不明

부내제칠십구련대 보병이등병목본실(木本實)(二一)은 삼십일일오전두시쯤하야 어데로 나간다음 도라오지안음으로 그련대에서는 곳부내 각경찰서에 수배하야그의행방을 엄탐중이라한다

高層建物이聳立한 都心地帶의新景觀
옛자최 간곳업시 빌딩街로 發展
德壽宮의古典美도異彩

太平通篇

서울이 한성(漢城)이라는 명칭으로부터 경성(京城)이라는 이름으로 고처진지도 벌서 세월이 오래되엿스니 아득한옛날의 서울거리의 이야기는 이제 갓작이 끄집어내기를 주저하드라도 최근 몃해동안에 가지각색으로 달라진 서울거리의 여러가지 풍경만으로서도 우리의 눈에 자못 이상히 비최여지는바가 만타 동리이름조차 옛것은 하나도차저보기 어렵거니와 더욱이 경성부구역이 확장되여 대경성을 부가 실시되든뒤로부터는 종래에 동(洞)이라고 불러오든것도 전부 정(町)으로 고치여저버렷다 이때위 동명좋은 별문제로 하고서 실제 건축물과 거리의 시설등 만거를 보드라도 날로 달로 달라저가는 판이다 괴자는 이제 붓을들고 서울거리의 이곳저곳 목으로 달라저가는 그모양을 한번 순찰하여보기로 되엿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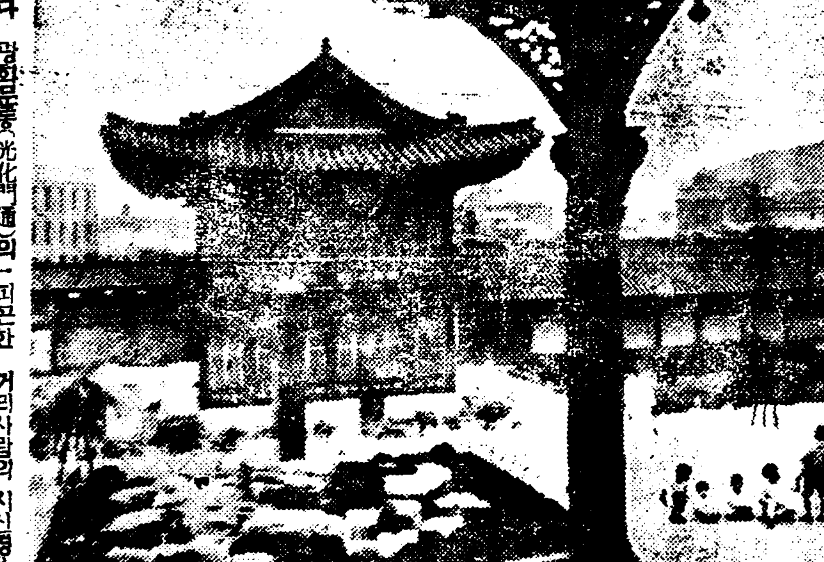
밝것은 멘먼저 태평통(太平通)거리로 드러노엿다 눈이부시도록 하얀비를 띄우고잇는 신식건물 총독부로부터 오백면쯤 안 이끼가 끼여도 농후하게 그자태를 자랑하고 잇는 숭례문(崇禮門)까지에 널다란 큰길은 일치선으로 뻐치여잇다 좌우량편으로 사람들이 보행하는 인도(人道)가 포장되여 잇슴은 물론이려니와 자동차 마차가 통행하는 차도(車道)도『아스팔트』로 윤이 나도록 깨끗이 다겨 잇다 광화문통(光化門通)의「그리-ㄴ 벨트」(綠色地帶)로부터 련속하야 해령되여 나란히 서잇는 가로수(街路樹)의 푸른빗은 피곤한 거리사람의 시신경을 얼마큼 완화시켜주는듯십다 옛날의 내장원(內藏院)자리는 우리조선일보사의 크다란 건물이 자리를 잡고잇고 내장원경(內藏院卿)고리용익(李容翊)씨의 판사자리에는 조선화재보험회사의 놉다란 건물이 서잇다 석개래와 벽에 푸르칠 붉은돌로 표나게 시선을 끄을든 전리왕직미술관도 그 기우러저가는 형태조차 불원에 업서지게되고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가 대신으로 드러서게 되기로 되엿다

……◇……

옛날의 엄상공러에는 최근대식 고탑(高塔)건물 경성부민관(京城府民館)이 노피 소사잇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이 만히 끄을고잇다 방금도 체신사업관(遞信事業館) 세무국(稅務局)등등의 대건물들이 건축중에잇고 소방대(消防隊)본부도 장차이거리로 나와서게되리라하니 좀변조가 오래된 경성부청들을 비롯하야 이거리는 삼층이상 사오층의 건물들로 집비하게되다 이래명풍거리는 관청,회사,신문사등의 『오퓌스센타』로되여가고잇다

……◇……

서양을 모방한 이런 신식증게人집들이 집비하여 잇는 이거리의 바로한편에 옛날을 추억케하는 덕수궁(德壽宮)은『오퓌스』거리의 특수한 존재로 예엔은 감히 그문아페도 발을 합부로 드려노치 못하던것을 입장료 오전만 내면 대한문(大漢門)안에 드러갈수 잇는 자격을 가지게된다 그러나 덕수궁아플 조금만 지나 태평통이정목에만 발을 드되게되면 좌편우편으로 게딱지 가튼 나즈막한 집들이 못그림운쳔도 몰르고 그냥 난쟁이 가티 안저잇는데 거리다가 버려논 상점들은 캐캐 때무든 고물들뿐이다 그러나 이집들의 허러질 운명도 머다고 볼수업스며 결국은 도심지대(都心地帶)로의 이거리는 명실(名實)이 상반하게『도심』의 형태를 나타내고 말것이다 (사진은 근대화한 태평통과 고궁덕수궁)



人事

▲鄭寅承氏(朝鮮語學會)當地市內牛角里第一普校內에서 朝鮮語標準語査定 第三讀會를 連三日開催하엿든바 無事完了人事次 本報仁川支局來訪
▲李眞琪(培花女子高普校敎員) 同上

압은곳에

압픈곳을곳개여게함……

만성고질이되야 늘 근육섬부와관절이 쑤시고 생기며 절니고 압픈神經痛·류ー마지스 關節炎의疼痛에는 사로메치ー루를 압픈곳의피부에발느시면 그럿케심하든 고통이 곳개이게되며 밤잠을 잘주무서게만듭니다」

부은곳 삐인곳에……

皮膚表面에 아무 고장이업시 筋肉深部가붓고 쑤시고 고통을주는곳과 運動競技 혹은평지낙상으로 멍이들거나 삐인곳에발느서면 피부를통하야 深部에침투되여 皮下筋肉과血管에吸收되여서 병근원을다소라며 炎症과瘀血을삭게하고 부은곳을채이게하며 고통이쯸니사라집니다」

피곤함을회복식힘……

運動競技 職務過勞 또는먼길을걸어서생긴 근육과관절의疼痛 炎症 疲勞에는 환부에溫感을주며 瘀血을삭게하고 부은곳과 疼痛과 疲勞가一掃되야원기잇게몸을회복식혀줍니다」

家庭應急常備藥……

어느가정에도 한개식준비하시사 頭痛…齒痛…견비통…담결니는때…허리와다리압픈데…피부가가려운병에…凍傷의豫防에…목이압흘때…빈대 벼룩에물닌데 또는방지에사용하시면 속처됨으로 한시도잇지못할약입니다。

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합니다

承認藥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サロメチール
사로메치ー루

産業

旱畓代作物의 地主讓步를 慫慂

旱災地小作人의 困境을 考慮 各道에 主旨徹底示達

過冬의 例年에드문 酷寒과 今春來의 旱魃로 麥作을비롯하야 諸般作物에 被害가 莫大하다함은 累報한바어니와 特히 朝鮮農作物의 大宗인 稻作은 苗育成時期와 移秧期에잇서서 旱魃로 用水가 不足하야 그作況이 크게 憂慮되는터인데 朝鮮은 總畓面積의 七割이 天水畓인 狀態이어서 農家의 眼前苦悶에도 不拘하고 移秧을 하지못한畓이 全朝鮮에 六萬五千餘町步의 廣面積에 達하야 農家特히 中小農家는 極히 困難한 狀態에 陷하야 그前途가 크게 憂慮되고잇다 總督府當局에서는 이와가티 移秧을하지못하고 不得己代作을하게된 畓이 相當한 面積에 達함에 鑑하야 通牒小作官會議에서 從來朝鮮의慣習에도 代作物은 小作人의 所得으로하는 例가 地方에따라서잇는일임으로 今後 代作物의 所得에對하야는 地主들에게 充分히 諒解식히어 되도록 小作人에게讓步하기에 努力하라는 指示가잇섯고 特히 今年과가튼 酷甚한 旱魃이 繼續되야 代作을 敢行하지안흐면 안될 面積이 六萬五千餘町步이나 達함에잇서서 한거름더나아가 社會政策的意味에서 作人의 再生産能力을 繼養하는見地에서 如上의 意味의 通牒까지 各道에 發한바잇섯다 한다

代作은中止코 때느즌移秧督促

私利에눈어두어收穫多寡無視 大多數地主는此行狀

京畿道에서는 今春來의 旱魃로因하야 道內 五百餘町步의 畓에 移秧을못하야 農家不安의禍根이되어잇는바 道當局에서는이 被害地에 對하야 代作을 奬勵키로 方針決定을보아 이미 道農會에서는 代作種子 蕎麥六百石 稗七石의 購入斡旋을 行하얏다 그런데 道當局에서는 別項과가튼 指示에依하야 代作奬勵에際하야 各郡에「代作地의 小作人에게는 地主가 犧牲的援助를하야 代作種子의 補助 나가서는 代作物을 되도록 作人의 所得으로할이조타」는通牒을 發하고 同時에 客月十五日부터 同二十五日사이에 各郡面에열린 農村振興關係會合을 利用하야 道內各地主에게 前記趣旨를 理解식힌바잇섯다 이에對한 其後의經過를 보면 相當한 諒解를가진 小數의地主는 이에贊同하야 實行에 前進하는 者도잇스나 大部分의 貪慾的地主들은 民法上又는 農地令에 그代作物의 小作料 讓步規定이업슴을 奇貨로하야 그에贊同치안흘뿐만아니라 當局의 그와가튼 指示가 잇슨것을 꺼리어 이時期에 蕎麥又는 稗等을 代作하면 普通平年作의 五割가량은 收穫할수잇슴에도不拘하고 小作人에게 無理하게도 代作을 中止식히고 期節인늣저서 平年作의 二割以內바게는收穫되지못하는 稻를 移秧식히는 者가 만타고한다 이를다시말하면 地主들이收穫이 도리혀만흔 代作을 中止식히고 收量이적신 적은稻를 移秧식히는理由는 前者에對하야는 當局의 指示가잇는터라 小作料를 밧기가未安하고 後者는얼마의收量이 적드라도 當當하게 小作料를 바들수잇는 기때문이라고한다 그외가티 地主가 命令하는대로 稻를移秧하면 小作人의立場은 더욱窮境에빠질것은 勿論으로 平年作의二割에도 밋지못하는收穫을그우에 地主에게 半分되지못할것으로 그實의狀況은 더욱加重하게되리라고하야 當局에서도 限度을알코잇다 한다

漁業保護取締規則改正全文

朝鮮漁業保護取締規則을 大改正하야 八月一日부터 實施하게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이것이 一般漁民에게 關係되는바 적지안흔것이므로 다음에 그全文을 紹介하기로한다。

×

第五條 左에揭하는 水産動植物은 第六號表에 揭하는 區域內에서는 同表에 揭하는 期間 이를 採捕함을 禁止함 但第三號에 揭하는 水産植物에 對하야 道知事의 許可를 受한때는 此限에 不在함

一、전복、홍합、갈미조개及맛
二、해삼、황게、자게、멀게及자라
三、미역、가시리、지직、우무까지及물

第五條의二 左에揭하는 水産動物은 其下에揭하는 期間 이를 採捕함을 禁止함

一、은어 自一月一日至五月末日及自九月十六日至十月十五日
二、열무기 自四月二十一日至五月二十日
三、소가리 自五月二十一日至六月十日
四、대합 自七月一日至八月廿日
五、모시조개 自七月一日至八月末日
六、赤貝 自六月十六日至十月十五日

第六條 左에揭하는 水産動物로서 其下에揭하는 體長以下의것은 이를 採捕함을 禁止함

一、大口魚 三十糎(全羅南道 忠淸南道 京畿道 黃海道 平安南道及平安北道에잇서서는 二十糎)
二、明太 三十糎
三、도미 十五糎
四、황옥미 十五糎
五、도미리 三十糎([illegible])
六、靑魚 九糎
七、전어 十二糎
八、숭어 十二糎
九、열무기 二十五糎
十、소가리 二十糎
十一、전복 七糎(慶尙北道及黃海道에잇서서는 八糎 慶尙南道에잇서서는 [illegible] 釜山府에잇서서는 [illegible] 外地에잇서서는 八糎 其他 [illegible] 道에 잇서서는 九糎 全羅南道 [illegible] 에잇서서는 [illegible] 其他의地에 잇서서는 十一糎)
十二、갈미조개 二十一糎
十三、가리맛 四十五粍
十四、대합 五糎
十五、모시조개 三糎
十六、赤貝 七糎
十七、황게 十二糎
十八、자게 十二糎
十九、게게 九糎
二十、가리 九糎

[illegible] 의 [illegible] 에 잇서서 [illegible]

第六條의二 [illegible]

第六條의三 [illegible]

第七條第一項을 左와如히改함

第三條乃至第六條의三의 規定은 左에 揭하는 [illegible] 에잇서서 [illegible] 水産動植物을 採捕하는者에는 이를適用치안흠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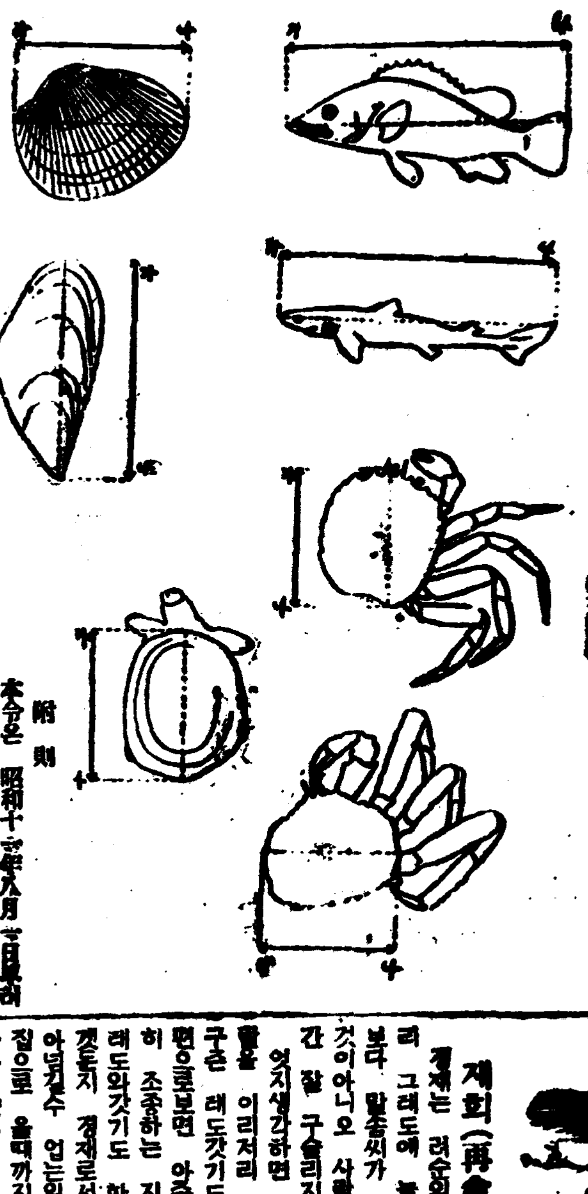
四、[illegible]

第十八條第一號中「第五條」의下에「第五條의二」「第六條의二」「第六條의三」을加함

第十八條第二號中「第六號表」의下에「第七號表」를加함

附則

本令은 昭和十一年八月一日부터 이를施行함



木材를原料로 酒精을製造

＝新義州에工場設置計畫

燃料國策에鑑하야 代用液體燃料의 生産에는 朝鮮에서도 斯業이 石灰乾溜 及石灰液化를 各히 北朝鮮에서 起業中인데 다시 最近 東拓을 中心으로 日本內地有力方面을 網羅하야 平北新義州에 一大알콜製造會社를 新設하려고慎重히 關係者間에 進行中인데 이는 木材를 原料로이 權威阪大中村敎授의 關係로부터 工場은 이에 서도 그實現에 積極的支援을하고잇다 原料는 木材 及 鋸屑로 이에서 알콜抽出은 (李類 甘蔗等의 糖化에比하면 훨신低廉하고 一般개솔린價格과 比하야도 採算이 可能한듯하야 그實現은 注目되고잇다

綾州薄荷組落成

【綾州】年年躍進하는 綾州의 薄荷는 年生産高 十萬圓을 算하야 이地方重要特産物의 하나로 浙한 長尾半平氏도 이事務를 爲하야 來渡하얏든것으로 同氏의 逝去後 繼續하야 關係者의손으로 硏究가 進行되고 알콜學界에서 無水알콜의 製造를하려는 것으로 압시 農林局長室에서急 [illegible]

鰮刺網漁不良 粕生産도半減

이에따라市勢는好調

北朝鮮의 鰮刺網漁는 天候의不順과 氣溫의 低下等으로 各地모다 成績이 자못不良하야 中旬膨南漁場을 最終으로 刺網漁는 終了할터인데 今日까지의成績은 昨年同期에比하야

咸北	五割減
咸南	八割減
江原	六割減
慶北	五割增
慶南	不變

의狀態이고 鰮粕과如함은 昨年의 六十萬俵에對하야 今年은三十萬俵强으로 約半減의 狀態이다 따라 市勢는 生鰮의 昂騰으로 神戶沖着의 八月物三圓八十五錢으로 昨年에比하야 五十錢가량의 高騰이다

炎熱의滿洲로 〃西瓜列車〃進行

奉天西瓜取引狀況

近日 滿洲一帶의 酷暑를當하야 淸涼果物로서 朝鮮産西瓜가 特別發置의「西瓜列車」로 滿洲에 進出되고잇는데 朝鮮貿易協會奉天支部에서 調査한奉天의 西瓜取引狀況을보면 다음과갓다

一、槪況

西瓜는 滿洲國在住의 各國人民 夏節生果로서 가장 만히 需要되어 酷熱의 滿洲에서는 淸凉、사이다ー等의 淸凉飮料와함께 淸凉食物의 王座를 占하고잇다 그런데奉天附近과 各沿線에도 相當히 豊富하게生産되나 大概맛이 납브다 上等品은 別項記載와가티 日本內地各方面으로부터 大連、釜山南方面經由로 輸入되여 年 即 昭和十年의 奉天輸入는 日本內地、滿洲、天津、南滿洲를合하야 六十一車口를合하야 五西三萬의 外來西瓜를 三個月間內에 奉天人이먹은터로 今年은 人口의增加關係와 酷暑로 一三割가량 만히需要되리라고생각한다

가、需要時期

七月初旬에는 이미 店頭에 顯著 나타나나 本格的需要期는 七月下旬부터 八月하순이다

나、需要品의種類와 出荷地

日本內地産＝肥後、伊豫、大和、三河、其他
臺灣産＝高雄
滿洲産＝海城、大石橋、熊岳城、鳳凰城
朝鮮産＝洛東江沿岸

다、供給狀況

右(다)는 昨年度의 主要한 出荷地로 가장많흔것은 肥後及伊豫이고 滿洲物이 그다음이며 太和及三河는 그리만치 못하다 地理的關係로 朝鮮物의進出은 相當히 有望한데 左의 諸點을 改良하면 곳 滿洲市場에서 [illegible]

1 品種[illegible]
2 皮의色彩를조케할것
3 運賃稅金을 [illegible]
4 [illegible]

今年度에 入하야서는 이미肥後及伊豫物이 만히入荷되고잇다 朝鮮物의出廻는 八月에入하야 開始되어 [illegible]

三、奉天의商況

上述한바와가티奉天人은 氣候關係上으로 生果類를 嗜好하야 特히 盛夏의 西瓜賣行은 大端하야 他果物을 壓倒하고잇다

市勢는 그날그날의 入荷量과 氣溫關係로 左右되는바 昨年의市價는 一貫匁當
都賣 四〇錢ー八〇錢
小賣 七〇錢ー一圓五〇錢
今年은 아직今後의 狀勢를보지안코는 알수업는것이다 現在都賣一貫에 對하야 七圓內外正當한 取引市勢이다

四、輸送方法

西瓜의 輸送에 對하야서는出廻期의 關係上 極히迅速하고 腐敗와 破損으로 防止하도록 努力하지안흐면안된다 이에는 朝鮮鐵道局에서도 恒常硏究改善을 講究하야貨車內部에 선반을 만들든가하야 家畜車를利用하야 特別裝置를 施하고通風을 조케하야 직두르지안케하고輸送에對하야 迅便으로하야 安東稅關에서도 通關을簡易經濟의 便宜를圖하고잇서朝鮮內에서發車하야 奉天着까지三日乃至四日間으로 輸送할수잇다

前記家畜車를 利用하면 積送荷物에 比하면 破損率도적고積載量도만하 有利하게되다 小口取扱은 運賃이 비싸우에 輸送이不便하며 破損이만흐며 品으로서는 不採算에陷함으로 絶對一車扱으로 하지안흐면안된다 一車積載量은 大小輕重의 相違로 一定치안흐나 大略二千個乃至三千五百個程度이다

五、運賃及關稅

車扱一噸에對하야
釜山ー安東ー奉天間 二圓〇六
大邱ー安東ー奉天間 二、六〇
平壤ー安東ー奉天間 一、六〇
元山ー安東ー奉天間 [illegible]
京城ー安東ー奉天間 一、四〇

一車積載噸數朝鮮線十三噸 滿鐵線十五噸 朝鮮線九級 滿鐵線四級

滿洲國輸入稅는 從價의 一割五分과 附加稅로 右正稅의五分을 課한다

六、取引方法

西瓜는 거이 委託販賣의 商習慣으로 受託者가 運賃稅金諸費用等의 立替하고 販賣手數料로 賣上金高의 一割을取하고 到着後 約一個月以內에 決濟한다

七、主要한取扱商店

宮島町 大谷商店 十間房 西山支店 加茂町 下關靑果出張所 淺選通 朝鮮物産販賣所 予代田通 小田洋行

其他滿人側問屋業者로 多數잇스나 委託販賣으로 注意를要한다

鑛區出願件數 漸次로減少

鑛業의堅實化表現

七月中의 鑛區出願狀態를 보면 出願件數 四百十六件으로 前年同期 七百五件에比하야 二百八十九件의 減少이며 今年一月以後 七月末累計를보면 前年同期 七千三百二十二件으로 [illegible] 二千七百十六件에比하야 半以上의 減少를 示한바 이제 그原因을 들면 첫재 出願地域의縮少 둘재 出願者가 從來는 無意識的으로 出願하던것이 最近은 어느程度의 確實性을 보아서 出願을하기때문이라고한다 그리고 一月以後 七月末까지의 鑛權登錄件數는 六百二十三件으로 前年同期 六百九十九件에比하야 七十六件의 減少를示한바 그原因은 今年에 드러와特히 許可鑛權의 失效件數가만흔 헛기때문이라한다 一例를들면지난六月中은 許可件數 二百餘件에對하야 登錄鑛區數는 百二十一件으로 許可件數의 三分一以上이 失效되엇다

京城家畜市場 七月中賣買高

지난七月一個月동안 京城府家畜市場에서 賣買된 牛、馬、豚의數는 牛二千三百二十六頭로 그代金은 二十七萬八千六百五十五圓이고 豚은 三百十七頭로 [illegible] 圓이며 [illegible]

全北魚組聯組織

【全州】全北道內六個所漁業組合(群山 於靑島 古群山 安西 蝟島 高敞)에서는 每年總漁獲高가六十二萬七千八十七圓에達하며 利益金만이 近九萬餘圓으로 全北漁業의 前途가 매우 有望되고잇다는데 今番全北道産業課에서는 各漁業組合을統制하고저 漁業組合聯合會를 組織하기로되엇다는데 아마도 發會式은오는十月一日에 擧行하리라고한다

京城府의 [illegible] 는昭和九年八月에 新設된바 當地畜産業者들은 組合을 組織하야 그以來 出荷에 努力하든中 今年三月에 組合會員新業에 着手하야 그後功을 보아合으로 지난一日에 同新築舍에서 落成式을 擧行하얏다

七月中米粟輸移出入高

▲米輸移出高 (安來換算單位石)

	今年	前年	今年	前年	合計 今年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高 (單位千圓)

	輸入 今年	前年	移入 今年	前年	合計 今年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前年	移入 今年	前年	合計 今年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用商品市況

藥漢 (京城八月三日現在) (一斤)

開城人蔘(一斤) 一等 二等 三等
豊山人蔘(一匣) 一等 二等 (以下單位斤)

桔梗、知母、天麻、白朮、狗脊、遠志、玄蔘、丹蔘、白芷、胡黃連、藥羌活、前胡、羌活、升麻、白鮮皮、黃芪、黃精、蒼朮、赤箭、巴戟、大戟、仙茅、地楡、黃蘗、黃芩、柴胡、防風、獨活、苦參、延胡 [prices illegible]

貝母、細辛、白芷(唐)、良薑、砂仁、肉豆久、鬱金、香附、澤蘭、荊芥、紫蘇葉、茵蔯、胡黃巴、麻黃、蝦草、牛膝、決明子、連翹、大黃、大戟、南星、牛蒡子 [prices illegible]

龍膽、川芎(土)、白芍藥、白豆蔲、白殭蠶、益智仁、破古紙、益智仁、香薷、薄荷、蘇子、益母草、蒼耳子、木賊、生地黃、白芨花、車前子、萹蓄、芫子、白附子、半夏、沙蔘 [prices illegible]

白扁豆、使君子、天花粉、天門冬、通草、忍冬、桂皮、辛夷、丁香、烏藥、龍腦(梅片)、黃栢、杜冲、枳實、梔子、金櫻子、五加皮、牧丹(土)、白茯苓、上白伏神、琥珀屑、竹葉、竹茹 [prices illegible]

五味子、瓜蔞仁、葛根、白何首烏、木通、金銀花、肉桂、桂枝、大皮、大皮、烏梅、沒藥、巴豆、厚朴、山茱萸、郁李仁、枸杞子、當歸、去脈自一圓五錢至一圓以上、椿芎、白介子 [prices illegible]

乾薑(土)、龍眼肉、神曲、五倍子、鹿角膠、朱砂、石膏、硫黃、甘草、從蓉、當歸、熟地、澤瀉、枳殼、鹿茸、熊膽、麝香、竹瀝、檳榔 [prices illegible]

＝天一藥房調査＝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三九五	金銀鑛	咸南洪原郡普賢面	七月十六日	京城府長橋町 代表者 姜[illegible] 同 鐘路 基錫
一二三九四	金銀鑛	忠北報恩郡懷德面	七月十六日	牙山郡排方面 代表者 張[illegible] 天安郡豊歲面 柳[illegible]
一二三九五	金銀鑛	平北義城郡五峰面	七月十六日	京城鐘路 代表者 朴[illegible] 鐵城郡五峰面 車[illegible]

◇共同鑛業代表者改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共)一一九八三	江原洪川郡瑞石面	七月十三日	代表者를金[illegible]으로改定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〇九一	忠北忠州郡山尺面 陰城郡甘谷面	七月十四日	姜[illegible]任意脫退
一一八六八	咸南咸興郡安水面 新興郡上元川面 下元川面	七月十五日	李[illegible]任意脫退

當節果物 복숭아・능금

黃昏 (148)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재회(再會) (七)

려순이 그의 원하든데 [illegible] 마다 차라리 그래도에 놀랍다 그는 전보다 말솜씨가 여간 능란해진것이아니오 사람의 심리를 여간 잘 구술리지안는것도갓햇다。 엇지생각하면 그의태도는 사람을 이리저리 되넘겨짚는 말 구든 태도갓기도하고 또 어느 면으로보면 아주 사람을 무관히 조롱하는 지나치게 친숙한 태도와갓기도 한데 그어느편이든지 경재로서는 심상히 보아넘길수 업는일이엇다。 그가이 집으로 올때까지 바라고 상상하든려순은 고민에싸인 침중한 려순이엇는데, 다다르고보니 아주 딴판이다。

(려순은 전보다 만히 변햇구나!)

경재는 속으로 이러케 생각하고 이러케 한탄하엿다。 한편으로 남의 속빨이를 하는 일이업섯고 또는 진실한속생각은 개겨히 표시하지안튼 신중하든 그전의려순에게 비하면 지금은 그품(品)이 사뭇 개가워진것 갓햇다。

『생각갓해서는 훌륭한지위도엇고십습니다만……』

하고 려순은 경재의기분을살피고 [illegible] 다시 말을꺼내엇다ー

『그러나 그것은 될수도 업는 일이고, 또생긴대도 제자리가아니니까요。 하니까 제게 적당한 자리를 가지는게ー즉 그사람이 그자리를 가지는게 떳떳한 일이겟지요…… 그러니까 맛당한 제자리가 무엇일지 좀 보시는 대로 솔직히 말슴해주서요』

『굴세올시다…… 그러나 사람이란 어듸 자리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게아니니까, 무엇이던 생기기만하면 누구나 할수잇는거아닌지요?』

『아니에요……아마 제자리가 원악 번번치 못하니까 말슴하시기가 거북하신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가 말슴하지요』

하고 려순은 한참 우숨석긴 눈으로 경재의동정을 살피다가 다시 말을이엇다ー

『이전에 지가 회사사무원이되엇다는것은、말하자면 선생님네 분에 인가사회의 계단(階段)을 려여서 두세층이나 뛰어오를것이나 일반이에요、그것을 요행이라고 보면 볼수도 잇겟지요만 근거업는자리니까지 항상올라오기가 쉽기만요。 그러니까 이번은 참말 흙을처다 혼들릴수업는 그런자리ー즉 푹저게 앉아있는자리에 서보고 십습니다。 그것이 가장 인가사회

해보라면서 놀마고 쉽지가 배치되어서……』

경재는 이러케말하며 또한번 놀라운눈을 려순에게 보내엇다。 그는 첫재 려순의 결심한 리론에 놀랏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유부단한 자기자신을 뭇고러히 생각하엿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놓을 짝 감고 지금생각하는대로 해볼작정 이에요。 구타여 놓흔자리를 구할필요가 업스니까 공장도조코…… 무엇이든지 가리지 안흘 심상이에요』

려순은 이러케 결론을 지엇다。 물론 그는 아직도 따고들어가보면 확고히 엇던 결심이 섯다고는 할수업섯다。 만일 그가 안에 구든결심이잇다면 단 한마디로 끈허말하고말앗슬것이다。 그러나 그러지못하고 길다라케 리론적으로 늘어진을 울아내려온것은 사실이 아직도 그결심이 그자신의 피와살과호흡이 되게못한까닭이엇다。 만일 그결심을 유신으로써 놋긴다면 한마디로、『나는 이러케 하겟다!』하면 그만은 전혀이 무어라코하든지 상관할거 업슬것이나 그것은 그리케 밧을수되는일은 아니엇다。 그래서 고자신도 그새 좀더강해지라고 여러가지로 반성하고、결하야 [illegible] 의권고도 가볍안배 잇서서 엇재든 위선 주위의권고를 따르기로 하엿든 것이다。

의 매밋바닥이라하며라도 할수 업는일이지요』

『굴세올시다 그생각만은 나도 동감입니다만 그자리가 어떠한 지? 또는 무엇일런지는 아마더 보다 려순씨자신이 더잘 아시 겟지요』

『반드시 그런것도 아니겟지요 만、엇잿든 저는 이러케 생각 합니다。 오늘날 인가사회란 마치 놉흔탑과 가튼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낙이야 엇 지되던 저만 작구 떠밀흔대로 올라가거위하야 떠놉히 탑꼭싸 호라고 드는데 놉히쌓을수록、 위험률도 따라서 놉하지는거니 까 말하자면 온갖남의 그들은 떠러지기위해서 탑을 쌋는심이 지요!……하니까 역시 안전한 곳은 땅바닥인것 갓해요。 그러 기때문에 대다수의인간이 오히 려 땅에 발붙이치고 잇는것이 아닐런지요? 저도 이만큼사람중 에 끼여잇는것이 차라리 제일 안전한처신이오 또 제자리일가 생각합니다』

『거게는 나도 물론 아무 이 의가업습니다。 나자신도 그러케